

투데이칼럼

전북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 ‘쏠림’에서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총수는 300명이다. 그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은 단 10명에 불과하다. 전국 시·도 중 아주 적은 편이다. 그러나 숫자가 적다고 목소리까지 작아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소수이기에 더 전략적으로, 더 다채로운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국회 상임위 배치’가 요구된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들여다보면, 전북의 상황은 여전히 아쉽다. 전체 10명 가운데 무려 3명이 법제사법위원회에, 2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치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위원회에 박희승·이성윤 의원도 함께 포진했다.

농해수위에는 윤준병·이원택 의원이 활동 중이고 이원택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지역 의원의 절반이 두 개 상임위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중된 위원회 활동은 국회 전반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확산시키는 데에 많은 제약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다루어지는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에 대하여 그 현장을 지켜볼 전북 의원이 없다면 지역의 이해가 후 순위로 밀릴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예산 배정의 관문이 되는 예결위, 대형 국책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국토위, 산업정책의 출발점인 산자위, 문화를 논의하는 문광위, 첨단기술과 AI 등 미래산업을 다루는 과방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원회들이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지분’을 가져야 할 위원회들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신영대 의원이 이번 회기에 이춘석 의원이 빠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치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전북은 대광법의 개정으로 전북 광역 도로망 구축, 새만금 개발, 전라선 고속화, 전주~김천 철도 연결 등 국토 기반 인프라와 직결된 굵직

한 사업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에 신 의원의 국토위 활동은 이러한 지역 숙원사업을 챙기고 전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한병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긍정적이다. 한 의원은 “민생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국가 예산 속에 전북의 몫을 담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 안호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각각의 위치에서 전북의 현안을 잘 챙기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일부 위원회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

전북 국회의원 전체의 3/10이 법사위에 있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사법개혁 등 거시적 차원

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지역 숙원사업을 풀어내는 데 있어 직접적 작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협의를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개인 의지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지역의 균형 있는 상임위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정 목표와 연계된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10명이 제각각 다른 상임위에서 전북의 각 현안을 맡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전북 지역 국회의원도 ‘쏠림’에서 ‘균형’으로 나아가야 하며, 선수가 많은 중견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북발전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때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등장에 따라 새롭게 바뀐 정치 지형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제 정치권에서 주도적 국회의정활동을 통한 맹활약으로 오랜만에 맞는 호기를 잘 활용하여 전북발전에 노력해야 할 때다.

사설

다시 마운드에 오른 오타니 쇼헤이

세계적인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 1994년생, 31세)가 최근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2023년 8월 신시내티전 이후 약 22개월(663일)만의 투수 복귀전. 그리고 다저스 이적 후 첫 등판이다.

그의 포지션은 투수, 외야수, 지명타자이다. 메이저 리그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9월 19일, 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를 기록하였다.

투수와 타자를 겸해서 ‘이도류’(二刀流)라고 불리는 선수다. 2016년에 일본 프로 야구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리·100타·20홈런’을 달성했다.

투타 모두 팀의 주력 선수로서 리그 우승과 일본 시리즈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NPB 사상 최초로 투수와 지명타자 두 개 부문에서 베스트 나인에 선정됐다.

미국에서는 ‘일본제 베이브

루스’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일본 아마추어 야구 최고 구속인 160km/h를 기록했고, 더 나아가 2016년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165km/h의 최고 구속을 기록한 보유자이다.

2018년에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그해 신인왕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만장일치로 MVP를 수상했으며, MLB총재 특별상,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상에도 선정되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 100인, AP통신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되었다.

그는 스포츠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역시 야구 선수였으며 어머니는 베드민턴 선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여 전국 대회에 출전했다.

신장 193 cm, 체중 95 kg이다. 오타니가 마운드에 오르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전 세계는 들썩이고 있다.

제7회 서묵회전의 의미

제7회 서묵회전(棲墨會展)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2층 미리내 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묵(墨)이 예(禮)를 지키다’이다. 회원들은 수암 김종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오랜 세월 서예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궁체, 관본체, 민체 등 회원들의 작품에서 열정이 느껴진다는 평이다.

보통 서예(書藝)라고 하면 한자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붓글씨 예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한자는 중국에서 수 천 년간 쓰인 문자로, 서예의 역사도 함께 한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서예가로 꼽히는 사람은 4세기 동진(東晉)의 왕희지이다. 왕희지는 해서, 행서, 초서, 예서, 전서까지 다섯 가지 서체를 두루 섭렵하였지만, 그중에서도 행서가 뛰어났다.

왕희지 이후 당대(唐代)의 유명한 서예가는 구양순, 안진경, 우세남, 저수량이다. 이들은 대부분 해서에 능통했다. 한국에서 서예라는 단어는 현대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손재형이 만들었다.

서예를 하는 데 쓰이는 4가지 도구인 종이(화선지 같은 한지나 겹지), 붓(筆), 먹(墨), 버루(硯)를 지필묵연, 또는 문방사우(文房四友)라 한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서예를 장려했다. 연하장이나 혼례예물 봉투, 전벌금 등 봉투 같은 데에는 되도록 붓으로 써야 예의라 생각한다. 민족운동가 또는 정치인 중에는 달필(達筆)들이 많았다.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들도 집권 후 뒤늦게라도 애써 서예를 배웠다. 붓글씨를 잘 쓰는 것이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늘은 캐나다 생일”



1일(현지 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열린 캐나다 데이 기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국기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캐나다 데이는 캐나다가 1867년 7월 1일 영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이 인정돼 독립된 연방 자치를 시작한 ‘건국 기념일’이다.

“비눗방울을 잡아라”



1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왕궁 광장에서 한 어린이가 비눗방울 아티스트가 만들어 내는 비눗방울을 터트리며 놀고 있다. 폴란드 기상 당국은 이번 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